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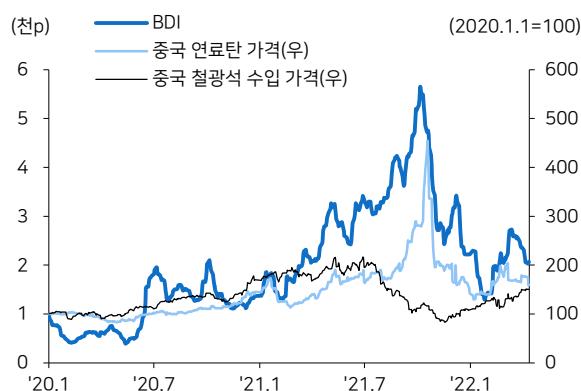
2022. 4. 14 (목)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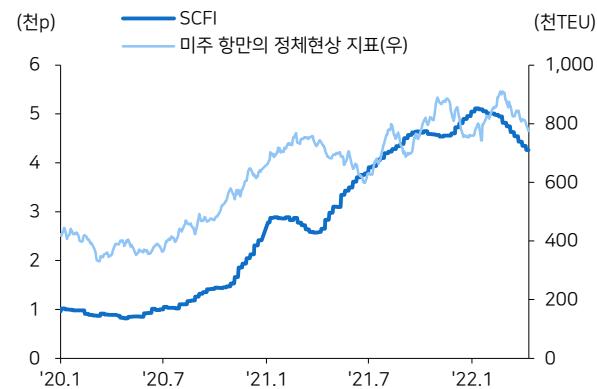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2,068.0p(+33.0p DoD)



#### 컨테이너운임(SC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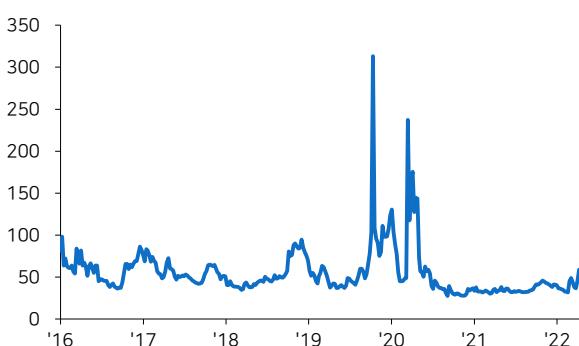
4,263.7(-85.1p WoW)



#### VLCC Spot Rate

58.9(+13.1p WoW)

#### (WS) VLCC Earnings



#### LNG Spot 운임

46.0p(+6.5p WoW)  
63.3p(-13.8p WoW)

#### (천달러/일) LNG 160K 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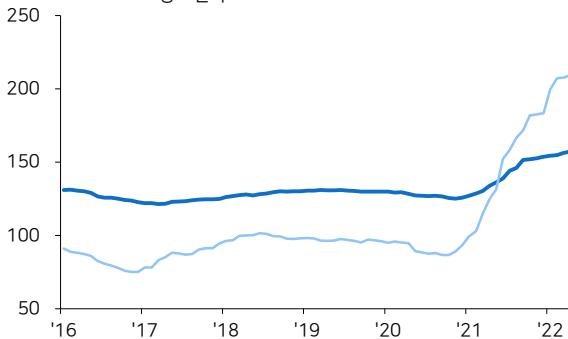
#### (천달러/일) LNG 174K CBM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2p(-0.1p WoW)  
210.4p(+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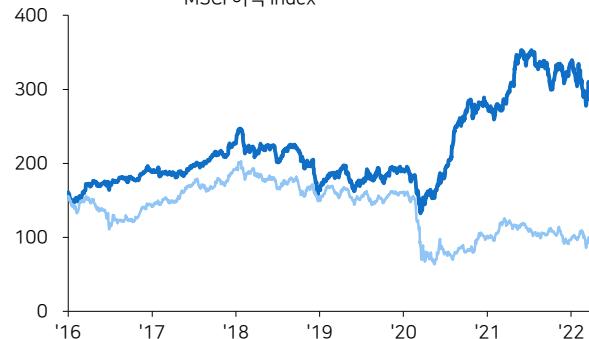
#### (p) 신조선가 중고선가



#### 항공시장 지표

268.7p(+0.6p DoD)  
101.0p(+3.1p DoD)

#### (p) MSCI 항공화물 index MSCI 여객 Index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티웨이항공, 국제화물 운송 효율성 높인다.. 젯테이너와 ULD 공급 계약

티웨이항공이 효율적인 화물 수송과 관리를 위해 독일 젯테이너와 ULD(Unit Load Device)공급 계약을 맺고 컨테이너·팔레트 도입을 통한 국제선 화물운송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도됨. 젯테이너는 독일 루프트한자카고의 자회사로 글로벌 ULD 관리·공급 기업임. 3월 컨테이너 도입을 완료한 티웨이항공은 5월 중 팔레트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로부터 특수화물 운송 등 위험물 운송 허가를 받음. (에어진)

### '코로나 특별여행주의보' 2년 만에 해제... 중국·러시아는 '유지'

정부가 14일부터 COVID-19 확산이 장기화되며 전 국가에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2년여만에 해제한다고 보도됨. 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26개국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 3단계)를 유지함. (한국일보)

### '작정하고' 멀리 떠난다...여행도 '보복 소비' 경향 뚜렷

2년여간 억눌려온 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6시간 이상 날아가야 하는 장거리 행선지를 선호하는 '보복 소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됨. 13일 기준 온라인몰 G마켓·옥션에 따르면 3월 11일~4월 10일 한달간 해외 항공권 판매가 전년대비 876% 증가했고, 판매순위 10위권 내 6곳이 장거리 여행지로 알려짐. (동아일보)

### 팬오션, LNG선 1척 건조 관련 3.6억원 시설투자

팬오션이 LNG선 1척 건조 관련 3.6조원 규모 신규 시설투자를 한다고 공시함. 투자기간은 2022년 4월 29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임. (이데일리)

### LNG container ships reach 25% of orderbook but is the gas too expensive to use?

컨테이너선 오더북 중 25%가 LNG 이중연료 선박이지만 LNG가격 고공행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도됨. 발주된 대다수의 LNG DF 컨테이너선은 2023-24년 인도될 예정임. 한편, LNG 이중연료 선박 중 Neo-panamax 선종이 가장 인기라고 알려짐. (Tradewinds)

### 국제사회 제재에 러 에너지업체 가동 급감

국제사회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됨. 러시아 에너지업체는 디젤과 가솔린 등을 보관할 저장고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알려짐. 이에 러시아 정유업계는 지난 주 들어 생산량을 일일 170만 배럴씩 줄였다고 보도됨.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5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전 대비 25% 이상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mbc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을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